

파도소리 아집 털고 觀하라 하네



쌍홍문에서 바라 본 단도해

남해의 보리암을 비롯해 동해의 흥련암, 서해의 보문사 등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는 모두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이를 두고 조용현은 '능엄경 수행법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논문에서 바닷소리(海嘯音)를 관(觀)함으로써 아집을 털고 진리의 경지에 이르는 능엄선 수행을 위해 관음성지들이 파도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리암 설화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역사가에 있던 것으로는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이다. 이성계가 왜구를 치기 위해 남해안에 왔다가 조선 개국의 뜻을 품고 이 산에 들어와 백일기도를 해서 역성혁명에 성공해 조선을 개국했다는 전설이다.

남해대교를 건너 읍내로 달리다보면 오른쪽으로 한적한 관음포(觀音浦)를 지나간다. 관음포는 강화도에 이은 제2의 팔만대장경 판각처로 알려진 곳이다.

고려가 굳이 이곳에다 분사도감을 두게 된 것은 해전에 약한 풍고군을 따돌릴 수 있고, 지리산 일대에서 구한 목재들을 섬진강을 이용하여 쉽게 운반할 수 있고, 넓은 갯벌이 있어서 다량의 판각재를 갯벌 속에 묻어둘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관음포는 세계 문화유산이 판각된 유적지이지만, 이정표 하나 없이 쓸쓸하고 외롭다.

30번 국도를 타고 영강고개를 넘어서면 왼쪽으로 금산 보리암으로 가는 길이 갈라진다. 산기슭 곳곳에 편백숲이 짙푸르게 자리하고 있다. 북쪽저수지를 지나 보리암으로 가는 좌우 숲길도 편백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1세대 편백은 이미 사라지고, 지금은 20~30년생 2세대 편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리암을 중심으로 하는 금산 탐방은 북쪽저수지 매표소에서 출발하여 보리암을 돌아보고 상주로 내



보리암

려가는 코스가 무난하다. 그 구간을 탐방 순서대로 셋으로 나누면, 아랫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 보리암 주변지역, 보리암에서 상주 매표소까지이다. 모니터 링은 설정한 탐방 경로를 따라 좌우 20m 범위 안에 들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아랫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이다. 마침 도로 확포장공사가 한창이다. 그 바람에 도로변 나무들이 흠뻑 젖어 뒹굴어지고 있다.

이 구간의 키 큰 나무로는 곰솔과 편백이 곳곳에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참나무 종류로는 굴참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가 많았다. 그 밖에 느티나무, 나도밤나무, 사삼나무, 노각나무, 비목나무 등 온대남부수종들이 혼화림을 이루고 있었다. 더러 노거수급 나무도 가끔 눈에 띄지만, 거의가 수령 30년 안팎으로 모두 고만고만하다.

금산은 화강암 암산(巖山)이다. 8부 위로 정상부까지는 온통 기암절벽들이다. 금산의 화강암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붉은 빛이 감돈다. 이 은근한 색깔은 화강암 속에 들어가 있는 칼륨장석 때문이다. 이것이 풍화되면서 은근히 분홍색을 띠는 것이다. 진달래와 철쭉이 필 때면 더욱 짙어올린다.

는 산의 고도 때문인지 난쟁이를 만나 못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 꽃샘추위로 동백은 꽃망울이 누렇게 얼었고, 조경으로 심은 긴잎화양목과 황록사철나무도 눈길을 끌지 못한다.

긴잎화양목은 이름 그대로 잎의 생김새가 일반 화양목에 비해 좁고 길다. 관악산 등지에 자생하는 우리나라 원산이지만, 근래에는 원예종으로 육종되어 조경목으로 나간다. 황록사철나무는 일반 사철나무와 비슷하지만, 잎에 황색 또는 연두색 무늬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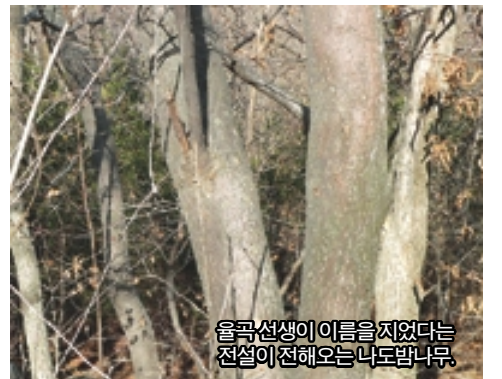
며칠간 계속되고 있는 꽃샘추위 탓인지, 야생화는 현혹색과 개별꽃만 꽃을 피우고 있을 뿐, 다른 초본은 땅속에서 아직 고개를 내밀지 않고 있다.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애호랑나무 등 성충으로 겨울을 난 몇 종류의 나무들이 보일 터이지만, 아직은 때가 일러 관찰된 곤충들이 없었다. 남쪽 바닷가 지역이라지만, 고도가 높고 바람이 강해서 곤충출현 시기가 내륙에 비해 빠른 것도 없다.

보리암 주변에는 박새류와 딱따구리류, 붉은머리오목눈이, 직박구리, 노랑턱멧새, 까마귀 등이 서식하고 있다. 어느 마음씨 착한 보살이 겨우내 굶주렸



사선대



올목선생이 이름을 지었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막아참나무



보리암 송악

온통 화강암이라 국지 좁아 가람배치 단순하고 식생 빈약 보리암 가는 숲길 좌우 20~30년생 2세대 편백군락 형성 곰솔 방풍림은 염해 막아주는 역할, 해안가 사찰에 필요

이렇듯 주변지세가 온통 바위다 보니 보리암이 자리한 국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국지가 좁다보니 가람배치도 단순하고, 새벽 도광석도 보광전(寶光殿)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만이다.

종무소인 간성각(簡星閣)은 다른 절에서 볼 수 없는 전각이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수명장수를 위해 남극성(南極星)을 보는 간성(簡星) 풍습이 있었다. 일명 '노인성(老人星)'이라 불리는 남극성은 아르고 별자리에서 광도가 가장 높은 카노퍼스 별이다. 이 간성각이 바로 그 옛 간성 풍속의 유산이다.

보리암이 자리한 고도는 약 600m로, 금산 전체 고도로 볼 때 8부 정도에 해당된다. 이 구간의 키 큰 나무들은 소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등이 있다. 이대와 조릿대를 비롯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4~5종의 대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주변의 토양유실을 막아주고, 수분을 머금게 하며, 새들에게는 더 없이 어늬한 보금자리와 은신처를 제공해주었다.

보리암 경내의 식생조경은 국지가 좁아서 별로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이씨기단 앞에는 해송과 돌배나무가 눈에 띄고, 경내의 활백꽃나무는 탐방 구간 내에서 한 그루만 관찰된 것으로 봐서 식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사람 손으로 심었을 차나무들은 제멋대로 키가 자라 덩스룩하다. 산신각 앞 종려나무

를 산새들이 생각해서 좁쌀과 옥수수를 싸들고 와서 놓고 갔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양이 어디 있을까... 무량재(無量齋)이면 기도가 따로 없다.

보리암은 어디에서나 전망이 좋다. 남해의 광명대 해와 크고 작은 섬들이 일망무제로 보인다. 가까이로는 승지도, 삼서도, 복도 등 보이고, 좀 멀리로는 전설의 세존도가 보인다.

발아래로는 금산이 바다와 맞닿은 상주가 있다. 한자로 '尙州'라고 쓰지만, 본래는 관음보살 진신이 상주한다고 해서 '尙住'라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발아래 곰솔 방풍림(防風林)이 아름다운 숲따를 이루고 있다. 방풍림은 마을로 불어닥치는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소금기로 인한 농작물의 염해(鹽害)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간혹물에도 염해를 끼치기 때문에 바닷가 사찰에서는 반드시 방풍림이 필요하다. 방풍림은 나무 높이의 약 30배 거리까지 바람의 속도를 늦춘다는 보고가 있다.

보리암에서 국립공원 상주리 매표소까지 하산하는 데는 1시간 남짓 걸린다. 금산 팔경 가운데 풍광이 으뜸이라는 쌍홍문이 그 길로 5분 거리에 있다. 쌍홍문에 서면 멀리 발아래로는 부처님이 돌배를 타고 건너가 머물렀다는 세존도가 아득히 건너다보인다.

세 번째 구간 역시 곰솔과 활엽수의 혼화림이다. 사 람 손에 식재된 곰솔은 이 구간의 허리 아래쪽에 집중

되어 있다. 금산은 남해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난대수종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겨우 송악, 보리참나무, 사스레피나무, 광나무, 자금우 정도가 손에 꼽힐 정도이다. 해발 681m라는 고도 때문이다.

쌍홍문 주변 절벽에 송악이 특실하게 자라고 있다. 상록당굴나무인 송악의 고향은 바닷바람이 닿는 따뜻한 남쪽지방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송악을 '담장'으로 알고 있지만, 외모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나무이다. 담장은 잎이 지는 털기나무이지만, 송악은 사철푸른 나무다.

숲길 옆에 자리한 사선대는 4개의 큰 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자로 '四仙臺'라고 쓴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세운 안내판에는 영어로 'four, hermit, bench'라고 해놓았다. '대(臺)'란 전망이 좋은 높은 언덕이나 바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의자'를 가리키는 'bench'보다는 높은 언덕을 가리키는 'uphill'이나 바위를 가리키는 'rock'이 어울릴지...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발족공고

映山 門徒會

映山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문도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문도회 회장 **현 덕**
 회원 **법 정** **현 월**
법 진 **해 양**
혜 전 **서 경**
현 진 **현 담**
혜 월

佛紀 2550년 10월 16日(陰)

영산문도회 063)858-7010
 011-658-8032(태봉사 현덕)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 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편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쟁과리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